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작발표회 성황리 개최! 김혜수 X 조여정 X 김지훈 X 김재철, 올여름 가장 예측 불가한 블랙 코미디 탄생 예고!

2026. 7. 29.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연출: 이창희 | 극본: 정은경, 박수린 | 출연: 김혜수, 조여정, 김지훈, 김재철 | 제작: 김지연, 황동혁)가 28일(화)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불륜보다 거대한 비밀로 폭주하는 블랙 코미디의 탄생을 예고하며 기대를 고조시켰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이하 <지금 불륜>)는 행복한 가정을 팔아온 인기 인플루언서 부부와 진흙탕 이혼 소송 중인 이웃집 의사 부부가 불륜조차 하찮아지는 감당 불가한 비밀로 얽히면서 폭주하는 연쇄 추돌 블랙 코미디.**

이번 제작발표회에는 연출을 맡은 이창희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혜수, 조여정, 김지훈, 김재철이 참석해 네 인물의 얽히고설킨 관계성부터 배우들의 호흡, 예측 불허한 전개의 비하인드까지 가감 없이 전했다.

#"멈출 수 없이 굴러간다"
배우들과 연출자를 단번에 매료시킨 강렬한 제목 & 독창적인 각본!

먼저 배우들은 이야기를 유쾌하게 비트는 대본과 강렬한 제목이 주는 끌림을 작품 선택의 이유로 꼽았다. 김혜수는 **“제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불륜이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는 호기심으로 대본을 펼쳤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허를 찌르는 재미와 예상하지 못한 결말로 치닫는 이야기가 흥미로워 도전하고 싶었다”**라며 작품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했다. 조여정 역시 **“볼링공을 내려놓으면 멈출 수 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사건의 속도와 이야기 방식이 너무나 흥미로웠다”라고 전했고, 김지훈과 김재철은 “대본이 재미있었던 것이 가장 큰 참여 이유다”, “제목을 듣자마자 무조건 탑승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연출을 맡은 이창희 감독은 **“대본을 보면서 굉장히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붙었다. 찾고 있던 작품이었다. 인물들 사이의 밸런스와 ‘불륜이 문제가 아니면 대체 무엇일까’라는 중심점을 잘 가져가려 했고, 상상했던 것보다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 덕분에 매번 연출자로서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라고 기대감을 더했다.

#이창희 감독에게 커다란 희열을 선사한 배우들
김혜수 X 조여정 X 김지훈 X 김재철, 4인 4색 캐릭터의 선명한 변신!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7월 31일 (금) 저녁 8시 공개
coupang play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7월 31일 (금) 저녁 8시 공개
coupang play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7월 31일 (금) 저녁 8시 공개
play

각 배우들은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인 남다른 노력도 공개했다. 자수성가한 인기 인플루언서 '경희' 역의 김혜수는 **"성공 이면에 가려진 인간의 이기심과 유약함이라는 얇은 민낯을 파헤쳐가는 흥미가 충만했다. 캐릭터의 완성도를 위해 국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조사하고 의상 제작까지 직접 참여했다"**라며 화려한 비주얼 변신을 예고했다.

우아한 피부과 원장 '수정' 역의 조여정은 **"불륜조차 하찮아지는 사건을 맞닥뜨리며 우아함과 교양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나도 모르던 불완전함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게 작품의 매력이다. 걱정도 겁도 많은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혹여나'라는 대사를 현장에서 재치 있게 추가했다"**라는 비하인드를 전했다.

'경희'의 연하 남편 '재홍' 역의 김지훈은 **"시청자들이 '내 이야기 혹은 주변 이야기 같다'고 공감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기했다"**라며 캐릭터의 현실적인 공감대를 강조했고, '수정'과 진흙탕 이혼 소송 중인 '보성' 역의 김재철은 **"회를 거듭할수록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인물이다. 말랑말랑하고 귀엽기까지 한 도전적인 캐릭터였다"**라고 전해 호기심을 자극했다.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설렜다"

배우들이 전한 뜨거운 칭찬과 밀도 높은 케미스트리

이날 배우들은 서로를 향한 아낌없는 극찬을 이어가며 막강한 팀워크와 케미스트리를 입증했다. 김혜수는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들을 향해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특히 김지훈에 대해 **“김지훈 배우의 처음 보는 새로운 얼굴과 연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감탄을 표했다. 또한 과거 드라마 <장희빈> 이후 오랜만에 재회한 조여정에 대해서는 **“시간이 흘러 내실을 다지고 조우할 수 있었던 건 이 작품을 하며 느낀 가장 큰 기쁨이었다. 현장에 가는 게 설렜고, 조여정 배우가 화면을 장악하는 연기를 보는 기쁨이 매우 컸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지훈은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흠모해 마지않던 김혜수 선배님과 부부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선택의 이유였다”**라고 전했고, 조여정은 **“신인 시절 느꼈던 ‘혜수 언니와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에너지와 존재감을 이번에도 온전히 느꼈다”**라며 강한 신뢰를 보였다.

아울러 배우들이 꼽은 이번 작품의 ‘비밀병기’는 단연 김재철이었다. 김혜수, 조여정, 김지훈 모두 **“지금껏 본 적 없는 김재철 배우의 진중한 코믹 연기와 색다른 얼굴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입을 모았고, 이에 김재철은 **“선배님들의 사랑과 애정 덕분에 칭찬 속에서 연기할 수 있었다”**라며 훈훈한 화답을 전했다.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 앙상블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독창적인 블랙 코미디를 선사할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

제가 아닙니다>는 오는 7월 31일(금)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